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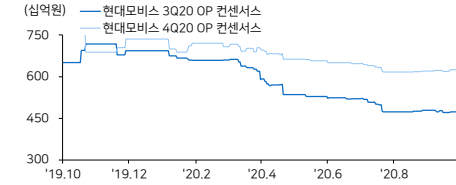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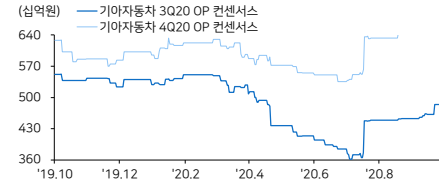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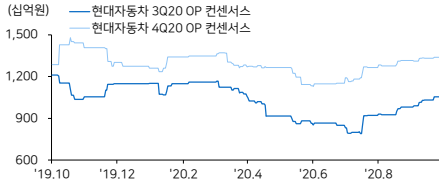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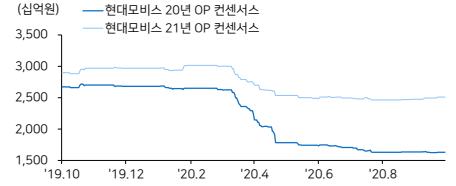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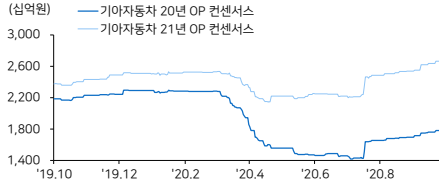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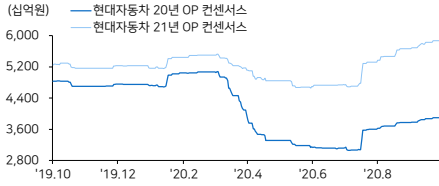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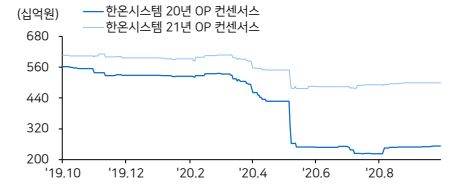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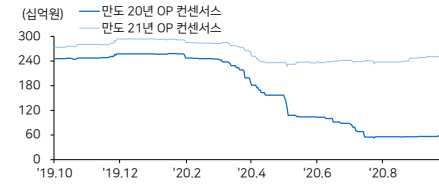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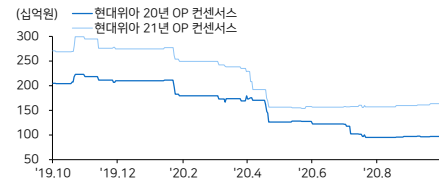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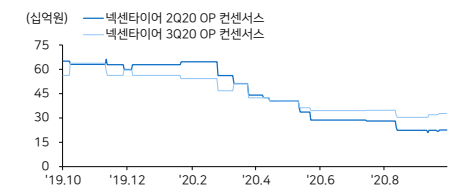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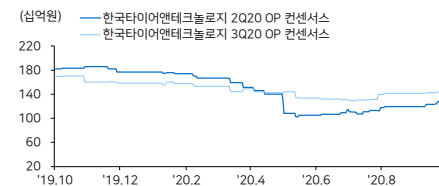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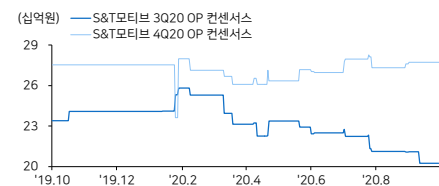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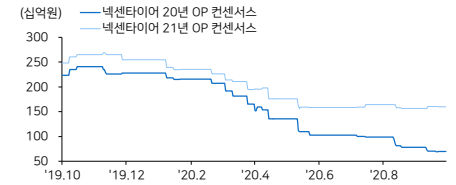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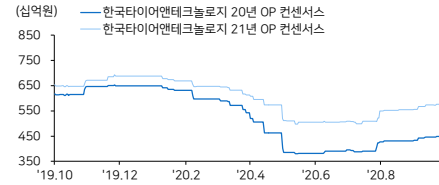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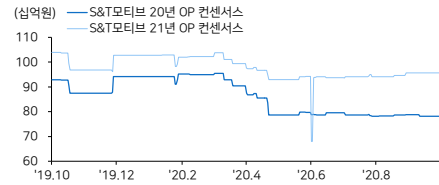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 · 기아차, SUV 타고 멋서 올 '고속주행' (서울경제)

현대 · 기아차의 지난 9월 미국 시장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 실적을 넘어섰고 3기 판매량은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 특히 기아차는 텔루라이드의 선전에 힘입어 9월 소매판매와 3분기 판매 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
<https://bit.ly/3d1QAPx>

현대차, 중국 · 유럽 공략 속도 낸다 (연합미디어)

현대차가 내년까지 9종 이상의 신차를 중국 시장에 투입. 최근 신형 '쏘나타'를 출시한 데 이어 세단, RV, 전기차 등을 고루 내놓을 계획. 중국용 쏘나타는 국내 8세대 쏘나타와 비슷하지만, 현지 취향에 맞춰 앞뒤 길이가 더 길.
<https://bit.ly/2Sva6UE>

현대차 내비게이션, JD파워 평가서 중 · 대형차부문 1위 (조선일보)

현대엔엑스프트는 자사가 현대차 쏘나타에 공급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미국 자동차 품질 평가회사 JD파워의 내비게이션 품질 조사 결과 중대형차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5일 발표.
<https://bit.ly/34pgzg9>

한국타이어가 분정 구도 가시화...조현식도父성년후견에 참여 (연합뉴스)

한국타이어가(☞) 경영권 분쟁 구도가 조현식 부회장의 참여로 사실상 가시화. 5일 재계에 따르면 장남인 조 부회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 조재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신청과 관련해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냈.
<https://bit.ly/2SvshAg>

역동적 디자인 아반떼 출격... 현대차, 美 신차 마케팅 재시동 (디지털타임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신차 마케팅에 재시동을 걸. 현대차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시장에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차 투입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https://bit.ly/3d1Q10T>

SUV 쏘넬의 힘...기아차 인도 진출 이후 최대 판매 (헤럴드경제)

기아차가 인도시장 진출 이후 2년만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 이는 지난 2019년 8월 기아차가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최대 판매량. 판매 증가분 대부분은 SUV(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 쏘넬이 견인.
<https://bit.ly/2Sfr0PUI>

기아차, 美 선투프 결함 집단소송 피했다...美 법원 '기각' (더그루)

기아차가 미국에서 선투프 결함에 따른 집단소송을 피했다. 미국 법원이 '집단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기 때문. 법원은 집단소송을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https://bit.ly/3d8De4b>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1년 만에 플러스 전환 (KOTRA)

2019년 8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온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당월치)은 전년 동월 대비 6% 소폭 상승한 데 이어 8월 증가폭은 두 자릿수(12%)로 확대.
<https://bit.ly/30xmHle>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